

전남도체육회 '남악 시대' 연다

24일 청사 준공식...본격 업무

전남도체육회가 남악 신도시에 보급자리를 마련하고 전남체육 진흥에 발 벗고 나선다.

전남도체육회는 오는 24일 오전 11시 무안군 삼향읍 오룡1길에 위치한 다목적 체육관에서 박준영 전남도체육회장(도지사) 등이 참석한 가운데 전남도 체육회관 준공식을 갖고 본격적인 업무에 들어간다.

도체육회는 부지매입 10억원과 시설비 112억원 등 총사업비 135억원을 들여 지하 1층·지상 5층 규모(부지 3151㎡·건축 연면적 1291.39㎡)의 전남도 체육회관을 완공했다. 도 체육회관에는 체육회 및 장애인체육회

사무처, 가맹 경기단체 사무실을 비롯해 스포츠 과학센터, 전남스포츠 전시관, 배드민턴과 농구가 가능한 다목적체육관 등이 들어선다. 도 체육회는 지난 1983년부터 광주시 구동에 위치했다가 2007년 12월 목포로 이전한 후 도 체육회관 신축을 추진해왔다.

이번 완공된 도 체육회관은 지열·태양광 시스템과 같은 신재생 에너지 설치와 건축물 에너지효율 1등급 인증(건축비 대비 10.43% 적용) 등 최첨단 시설로 지어진 것이 특징이다.

이와 함께 도비 부담을 최소화하고자 광특자금 38억원과 복관가금 50억원 등 총 88억원의 시설재원을 확보해 활용했다.

도 체육회는 전남 체육인의 보급자리가 될 도 체육회관 완공에 따라 전남 체육진흥에 획기적인 전기를 마련해 줄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또한 스포츠 산업을 지역의 고부가가치 산업으로 육성하고, 지역경제를 활성화하는데 큰힘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전승현(59) 전남도체육회 사무처장은 "전남 체육인들의 숙원사업인 '체육회관 건립 완공'은 전남 체육발전에 커다란 계기를 마련해줄 것"이라며 "각종 전국 규모대회 개최와 동·하계 전지훈련팀 유치 등 스포츠 마케팅의 기반을 더욱 튼튼히 다져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문의(061-288-1300)

/송기동기자 song@kwangju.co.kr

17.1 X 11.7 cm

광주 매일신문

2013년 01월 17일 (목)
14면 스포츠

전남도체육회, 새 회관 입주 21일부터 본격 업무

전남도체육회가 무안군 남악신도시에 새로운 보급자리를 마련하고 재도약을 꿈꾼다.

도체육회는 16일 "총공사비 135억원을 들여 최근 완공된 전남도체육회관으로 입주해 오는 21일부터 본격적인 업무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지하 1층, 지상 5층 규모의 신재생에너지 시설로 지어진 신축 회관(사진)은 체육회 및 장애인체육회 사무처와 가맹경기단체 사무실을 비롯해 스포츠과학센터, 전남스포츠 전시관, 배드민턴과 농구가 가능한 다

목적체육관 등이 들어서었다.

전남 체육인의 보급자리가 될 체육회관은 전남체육 진흥에 획기적인 전기를 마련해 줄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도체육회를 비롯한 장애인체육회 등 가맹경기단체가 함께 있어 행정 능력 향상은 물론 유기적인 정보 교환을 기대할 수 있게 됐으며, 다목적 강당 및 스포츠과학센터는 선수들의 경기력 향상과 도민들의 건강 증진에 많은 기여를 해줄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또한 전남체육 역사를 한 눈에 볼 수 있는 전시관 및 과학화되고 체계적인 선수 육



성의 기초가 될 스포츠과학센터 운영도 타시·도체육회와 차별화된 시설로 손꼽힌다.

한편 회관 준공식은 오는 24일 오전 11시 다목적체육관에서 열린다.

/김기식 기자 pj21@kjdaily.com

22.3 X 9.6 cm

전남도체육회 '제3의 도약' 꿈꾼다

최근 완공된 전남체육회관서 본격 업무 돌입 스포츠과학센터·전시관...친환경 최첨단 시설

전남도체육회(체육회장 박준영 전남도지사)가 남악신도시에 반영구적인 보급자리를 마련하면서 '3번째 도약'을 꿈꾼다.

전남도체육회는 135(부지매입 10, 설계·감리용역 13, 시설비 112)억원을 들여 최근 무안군 삼향읍 오룡1길 41번지에 전남도체육회관(사진)을 완공하고 18일부터 20일까지 3일동안 이전한 뒤 오는 21일부터 본격 업무에 돌입한다고 15일 밝혔다.

지하 1층, 지상 5층(부지 3천151㎡, 건축면적 1천291.39㎡, 바닥면적 5천630㎡) 규모로 체육회(일반·장애인) 사무실, 회의실 등을 갖춘 전남도체육회관은 지난 2011년 10월 20일부터 공사를 시작해 지난해 12월 완공의 기쁨을 누렸다.

이로써 지난 2008년 제89회 전국체육대회를 11개월여 앞두고 전남도와의 유기적이고 효율적인 업무 추진과 함께 89체전의 성공 개최 준비를 위해 2007년 12월 8일 목포시로 이전을 추진하면서 '제2의 도약'을 추진해왔던 전남도체육회는 명실상부한 도약 체계를 다시한번 갖추게 됐다. '제1의 도약'은 지난 1983년 광주광역시 구동에 위치했던 전남도체육회관을 소유했던 시기.

전남도체육회관에는 체육회 및 장애인체육회 사무처와 가맹경기단체 사무실을 비롯하여 스포츠과학센터, 전남스포츠 전시관, 배드민턴과 농구가 가능한 다목적체육관 등



이 들어섰다.

먼저 전남도체육회관의 특징은 신재생에너지 설치, 건축물에너지 효율 1등급 인증 등 최첨단 시설로 지어졌다는 점이다.

전남의 경우 많은 일조량과 바람이 일정하고 풍부해 신재생에너지를 생산할 수 있는 여건이 다른 지역보다 좋아 친환경적 조건을 갖춰 신재생에너지 시설을 설치하게 됐다.

다목적체육관 냉·난방용으로 220kw의 지열시스템과 전등, 전열

용의 태양광시스템(42kw)을 갖췄다. 이는 건축비 대비 10.43%를 적용한 것으로서 공공시설 5%, 도 조례 7%의 신재생에너지 설치 비용 기준치를 상회한 것으로서 최근 사회적 이슈가 되고 있는 에너지절약의 극대화를 이룰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여기에 체육관 옥상녹화 및 창면적 벽면 대비 45%(기준 50%이하)로 시공된 건축물에너지효율 1등급 인증도 눈에 띈다.

더불어 에너지 절약 및 친환경 자

재 사용 등의 특징도 가지고 있다. 다시말해 고효율 기가재(LED) 사용 및 개별 냉·난방시스템 적용, 친환경(투수성) 바닥포장재 반영, 자연채광 및 환기를 위해 체육관 지붕에 유리천장 4개소 설치, 건물 내부 창측 광선반 설치 등이 그것이다.

또한 도비 부담을 최소화하고자 광특자금 38억원과, 복권기금 50억원 등 총 88억원의 시설 재원을 확보하여 활용한 점도 특징 중 하나로 통한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전남 체육인의 보급자리가 될 전남체육회관의 준공은 전남 체육 진흥에 획기적인 전기를 마련해줄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전남도체육회를 비롯한 장애인체육회 등 가맹경기단체가 함께 있어 행정 능력 향상은 물론 유기적인 정보 교환을 기대할 수 있게 됐으며 다목적 강당 및 스포츠과학센터는 선수들의 경기력 향상과 도민들의 건강 증진에 많은 기여를 해줄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이밖에도 전남체육회관의 준공은 스포츠산업을 지역의 고부가가치 산업으로 육성하는데 큰 힘이 될 전망이다. 또한 전남체육 역사를 한눈에 볼 수 있는 전시관 및 과학화되고 체계적인 선수 육성의 기초가 될 스포츠과학센터 운영도 타 시·도체육회와는 차별화된 시설 중 하나로 손꼽힌다.

전승현 전남도체육회 사무처장은 "전남 체육인들의 숙원사업인 '체육회관 건립 완공'은 전남 체육 발전에 커다란 계기를 마련해줄 것으로 기대된다"고 강조했다.

한편, 전남도체육회는 오는 24일 오전 11시 다목적체육관에서 박준영 전남도지사 등이 참석한 가운데 준공식을 갖고 본격적인 업무에 돌입할 계획이다. 전남도체육회 사무처의 새로운 연락처는 061-288-1300이다.

신광호 기자 sgh@namdondnews.com

28.6 X 24.5 cm

전남도 체육회 남악시대 활짝

체육회관 입주 21일부터 공식업무

전남도체육회가 남악신도시에 보금 자리를 마련하고 도약을 꿈꾼다.

도체육회는 최근 완공된 무안 삼향읍 전남도 체육회관으로 사무실을 옮긴 뒤 21일부터 업무에 들어간다.

지난해 12월 완공된 전남도 체육회관은 135억원을 들여 3151㎡ 부지에 지하 1층, 지상 5층 규모로 일반·장애인 사무실과 회의실 등을 갖추고 있다.

전남도 체육회관은 신재생에너지 설치, 건축물 에너지 효율 1등급 인증 등 최첨단 시설로 지어진 것이 특징이다. 전남의 경우 많은 일조량과 바람이 일정하고 풍부해 신재생에너지를 생산할 수 있는 여건이 다른 지역보다 좋아 신재생에너지 시설을 설치했다.

또 다목적체육관 냉·난방용으로 220kW의 지열시스템과 전등·전열용의 태양광시스템(42kW)을 갖췄다.

체육관 옥상녹화 및 창 면적 벽면 대비 45%(기준 50% 이하)로 시공된 건축물에너지효율 1등급 인증도 눈에 띈다.

에너지 절약 및 친환경 자재 사용 등의 특징도 가지고 있다. 고효율 기가재(LED) 사용 및 개별 냉·난방시스템 적용, 친환경(투수성) 바닥포장재 반영, 자연채광 및 환기를 위해 체육관 지붕에 유리천장 4개소를 설치했고 건물 내부 창측에는 광선반을 설치했다.

전남도체육회는 신축 전남도 체육회관으로 사무실을 이전함에 따라 전남 체육 진흥에 획기적인 전기를 마련해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도체육회를 비롯 장애인체육회 등 가맹경기단체가 함께 입주해 행정 능력 향상은 물론 정보 교환을 유기적으로 할 수 있고, 다목적 강당 및 스포츠 과학센터는 선수들의 경기력 향상과 도민들의 건강 증진에 많은 기여를 해줄 것으로 보고 있다. 이밖에도 전남도 체육회관의 준공은 스포츠산업을 지역의 고부가가치 산업으로 육성하는데 큰 힘이 될 전망이다.

승마, 요트 등 다양한 레저·스포츠 대회를 지역에 유치해 이를 관광프로그램과 연계시켜 도민의 소득을 창출하는데 도움을 줄 것으로 보인다. 또 각종 전국규모 대회 개최 및 동·하계 전지훈련팀 유치 등 스포츠마케팅의 기반을 다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전승현 전남도체육회 사무처장은 “전남 체육인의 숙원사업인 체육회관 건립 완공은 전남 체육 발전에 커다란 계기를 마련해줄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한편 전남도체육회는 오는 24일 오전 11시 다목적체육관에서 박준영 전남도 체육회장(도지사) 등이 참석한 가운데 준공식을 갖는다.

최동환 기자 dhchoi@jinbo.com



전라남도 무안군 삼향읍에 들어선 전남체육회관 전경.

전남도체육회 제공

11.8 X 33.8 cm